

●●● 이상진 축산연구소 소장

실용화에 중점을 둔 연구소 운영을...



▲ 이상진

1973~1977 경상대학교 축산학 전공
1984~1986 건국대학교 가축사양학 농학석사
1988~1991 경상대학교 가축사양학 농학박사
1977 제주시험장, 축산시험장 축산연구사
1992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관
2000 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장, 가금과장
2004 축산자원개발부 부장
2007 축산연구소 소장

국내 축산업의 유전, 영양, 사양, 시설, 환경, 기술 보급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1906년에 설립된 축산연구소가 올해로 10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 뜻깊은 해에 이상진 전 축산자원개발부장이 1월 1일부로 축산연구소장의 중책을 맡게되면서 신임 소장으로 서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축산연구소의 운영방안을 들어보았다.

축산연구소는 현재 경기도 수원에 본소 및 축산환경생명부가 자리잡고 있으며, 충남 천안에 축산자원개발부, 강원도 대관령에 한우시험장, 전북 남원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자리잡고 있고, 본원 및 각 지소에 총 347명의 연구원 및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축산연구소와 30년 동반자

이상진 신임 축산연구소장은 1977년 제주시험장과 축산시험장 축산연구사로 입사한 이후 축산기술연구소 영양생리과, 대전지소장,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을 거쳐 2004년 축산자원개발부장을 역임하였고, 제3기 책임연구기

관의 출범과 함께 축산연구소의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30년간 축산연구소에 몸담으면서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매진해온 축산전문가이다.

이상진 소장은 현재까지 140여편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고, 가금생산학 등 23권의 책을 집필하면서 축산인들에게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오메가 계란 생산용 사료 등 16건의 특허를 인증 받아 실용화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04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고, 2005년 가금학회 학술상을 받으면서 축산연구 기술에 있어 남다른 자부심과 애착을 보여주고 있다.

양축가의 소득향상에 우선

이상진 소장은 축산업은 농업부문 생산액의 32.7%를 차지하면서 비중이 큰 만큼 소장으로써 풀어야 할 문제도 많아졌다고 말한다. 이 소장은 우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안전축산물을 개발하며, 전문적인 주문기술을 적극 개발·보급하여 양축농가의 소득향상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어 농민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연구소로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가금분야에는 금년에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 산란노계육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한국재래 닭 4원교배종 작출 등에 비중을 두어 연구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해 선보인 비파괴 계란 신선도 및 혈란 판별시스템이 실용화 단계에 있는 만큼 유통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고, 오리분야에도 지난해부터 연구원을 확충한 만큼 가금분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뜻을 밝혔다.

양계업에 남다른 애정

이상진 소장은 양계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0년 가금과장을 맡으면서 양계산



▲ 수원에 위치한 축산연구소 본소 전경

업 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연구와 소비를 위한 노력에 큰 도움을 주었다. 본회 김정위원은 물론, 본지 편집위원에 참여하면서 양계발전에도 기여한 바 크며, 2003년에는 구구데이 행사를 처음 제창하여 축산연구소 대전지소(당시)에서 제 1회 구구데이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농협, 양계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연계하여 2006년 제 4회 대회까지 이어오면서 닭고기와 계란 소비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상진 소장은 때로는 리더로서 때로는 후원자로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직을 수행할 뜻을 밝혔다. 축산연구소는 2002년부터 책임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2004년과 2005년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신입 소장으로서 부담이 갈 수도 있지만 이 소장은 앞으로 일신하는 의미에서 조만간 연구소의 명칭을 바꾸고, T/F팀을 구성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할 뜻을 밝히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실적위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되 국가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뜻을 밝혔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